

코오롱티슈진 TG-C, 무릎에서 척추까지 적응증 확대 나선다

- 세계 최대 척추학회인 NASS(North American Spine Society) 공동후원사로 참여
- 학회에서 2021년부터 진행된 TG-C의 척추 적응증 전임상 데이터 발표
- 현재 미국에서 진행중인 무릎관절 대상 임상 3상과 함께 척추까지 적응증 확대해 TG-C의 의학적 가치 증명할 것

코오롱티슈진이 4월 21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척추학회인 북미척추학회(NASS, North American Spine Society)에 공동 후원사로 참여해 척추 질환에 대한 TG-C의 전임상(Preclinical)결과를 발표했다. 코오롱티슈진은 앞으로 기존의 무릎과 고관절 분야를 넘어 척추까지 순차적으로 적응증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

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21년초부터 전임상단계를 진행하면서 개념검증(PoC, Proof of Concept) 및 유효성 확인 실험 등을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해 척추 질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했다. 2년여의 기간동안 축적한 전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‘척추질환의 잠재적 치료제로서 TG-C(TG-C as a Potential Treatment for Degenerative Disc Disease)’라는 주제로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된 TG-C의 척추 질환에 대한 구조적 향상과 통증 감소 데이터를 발표했다.

코오롱티슈진 한성수 대표는 “세계적인 척추학회인 NASS에 참여해 그간 코오롱티슈진의 적응증 확대 노력을 알릴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”면서 “TG-C의 척추 적응증 확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美 FDA의 임상진행을 위한 승인절차인 IND까지 진행할 예정이며, 현재 미국 내에서 진행중인 무릎관절 대상 임상3상과는 다른 작용기전(MoA, Mode of Action)으로 FDA의 임상승인을 받아 다양한 관절 부위에서 TG-C의 세포유전자 치료제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포부를 밝혔다. 본 총회격인 정기총회(Annual Meeting)는 2023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

북미척추학회(NASS)는 1984년 설립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척추 학회로서, 전세계 8,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. 미국 워싱턴 D.C에 본부를 둔 척추 질환 치료 분야 과학자와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다. 매년 진행되는 척추학회 총회는 전 세계의 관련 임상연구 전문가 및 의료 전문의 등이 참여한다. 이번 학회에는 세계 최대 의료 장비 및 서비스 전문 다국적 기업인 메드트로닉(Medtronic)사가 대표 후원사(Principal Sponsor)로 참여했고 코오롱티슈진은 공동후원사(Major Sponsor) 자격으로 참여했다.

<관련 사진>







[NASS에 참석하여 발표를 진행 중인 코오롱티슈진 노문종 대표이사]